

No. 2013-09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2. 25

① 일본경제지표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FTA, 활용도 저조로 실효성 낮아

③ 경제정책동향

④ 일본기업동향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4/4분기 GDP성장률은 ▲0.4%로 3/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 연간으로는 1.9% 기록
- 2012년 연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도 사상 최대인 1조 6,294억엔의 적자를 기록
 - *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7천억엔으로 축소
- 2012년 경상수지는 4.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
- 2013년 1월 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9.2엔, 2월25일 기준 94.17엔

구분	2010	2011	2012	2012						201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질GDP증가율(연율,%)	3.4	0.3	1.9	▲3.5			▲0.4			-
수 출(천억엔)	678	653	637	53	50	54	51	50	53	48
수 입(천억엔)	625	697	707	58	58	59	57	59	59	64
對한국 수출	54.6	52.1	49.1	3.96	3.85	3.98	3.94	3.93	4.35	4.01
對한국 수입	26.7	32.9	32.4	2.78	2.44	2.42	2.70	2.82	2.84	3.12
직접투자(억달러)	572	1,157	1,223	287			339			-
對한국 투자	11	24	40	4.9			9.4			-
소비자물가(%)	▲0.8	0.0	-	▲0.2	0.2	0.2	0.0	▲0.3	▲0.1	-
실업율(%)	4.9	4.5	-	4.3	4.2	4.2	4.2	4.1	4.2	-
경상수지(천억엔)	166.6	76.2	47	6.3	4.5	5	3.8	▲2.2	▲2.6	-
엔화 對미 달러	85.7	79.1	-	79	78.7	78.2	79	80.9	83.6	89.2
환율 對원화	1,321	1,391	-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1,197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1.2	12.9	-	12.7	12.7	12.8	12.7	12.7	12.7	12.7
은행대출금리(%)	1.57	1.48	-	1.40	1.40	1.38	1.38	1.38	1.36	-

주1) '10년 '11년 지표는 회계연도(전년4월~익년 3월), '12년 지표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연구보고서

- 『FTA의 경제효과 분석 : FTA에 관한 각종 시산』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월 20일

*출처: 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zk097/zk097_10.pdf

- 『한국의 FTA영향 : 일본경제연구회 보고자료』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월20일

*출처: 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zk097/zk097_12.pdf

- 『민간조사기관의 경제전망(공공투자와 엔저 가속으로 대폭 수정)』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월22일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2_292.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FTA, 활용도 저조로 실효성 낮아

□ 일본의 FTA 활용도 저조

- 일본은 금년 봄부터 韓中日 FTA 등 잇따라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교섭을 시작하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활용률은 40%로 저조
 -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은데다 절차도 번잡하여 예상했던 만큼의 이익이 없어 향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일본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3개국이며, FTA 체결상대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점하는 FTA 커버율은 20%정도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계산에 의한 숫자에 불과, 실제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FTA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
- JETRO가 FTA체결대상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6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FTA우대세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0.1%에 불과
 - 수출만을 보면 34%로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들의 1/3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

<FTA 자유화율의 국제비교>

< 일본 >		< 일본 이외 >	
주요 FTA	자유화율	주요 FTA	자유화율
일본-필리핀	88.4%	미국-호주	96%((미국측)
일본-인도네시아	86.6%	미국-페루	99.3%(페루측)
일본-태국	87.2%	한국-EU	99.6%(EU측)

*자유화율은 전 수출품목 중 관세를 철폐한 품목수의 비율

□ 농산물 분야에 관세철폐 예외품목 많아

- 그 이유의 하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제까지 FTA에서 쌀, 밀, 유제품 등 농산물 840개 품목을 포함 940개 품목의 관세를 유지해 옴
 - 이것은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결과 품목기준의 자유화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에서도 88.4%에 그침

- 이를 뒤집어 보면, 일본의 무역상대국들도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산품의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기업들의 수혜 폭이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예외품목 많으면 교섭력도 떨어지고 무역촉진 효과도 제한적

- 일본 측의 예외품목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국으로부터도 공산품 등 양보를 얻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산업성의 지적임
- 실제로 멕시코나 아시아국가와의 FTA교섭에서는, 일본 측에서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의 관세인하나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
 - 일본 이외의 FTA자유화율은 95%이상이 주류로 그만큼 무역촉진효과가 높음

□ TPP참가 계기로 예외품목 수 축소, 농산물의 자유화 가속 전망

- 최근 TPP교섭 참가의 시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관세철폐의 대상 외로 하는 이른바, 성역이 어느 정도나 인정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음
 - 일본은 쌀, 사탕, 밀 등 농산물을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
- 그러나 설사 성역이 인정되더라도 그만큼 일본도 여타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통상교섭이 상식이기 때문에 큰 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 1993년 UR교섭에서도 일본은 쌀의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없는 외국쌀의 일정량을 수입하기로 약속하는 대가를 지불
- 그 결과 얻어진 이익과 시장개방에 따른 고통이 비례하기 때문에, 금년 예정하고 있는 다수의 통상교섭에서는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③ 경제정책동향

□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원책

- 일본정부는 18일 산업경쟁력 회의를 열고 농업강화책 검토에 착수, TPP교섭 참가표명을 겨냥한 환경정비 일환으로 6월까지 성장전략에 답을 예정
 - 아베총리는 농업에 대해 종래의 발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고 역설하고, 농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
- 하야시 농림수산 대신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농산물의 수출확대, ②농·상·공 연대 강화, ③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 농림수산물 수출을 2020년에 1조엔으로 배증시키기 위해 2월에 발족한 농업강화 관민펀드* 등도 활용하여 산업간 제휴를 강화

*농업강화펀드: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가공·유통·판매업에 진출하는 6차산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15년간 투자할 수 있는 펀드
 - 농지활용책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약 40만 헥타의 경작방기지를 해소하는데 주력
 - 고령화로 은퇴한 농가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를 집약하여 희망 농가에 전대
 - 이미 경작방기지로 된 농지는 다른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 한편, 경쟁력회의 민간의원들은 농지집약화나 농업보조금 의존체질 탈피 등 보다 근본적인 농업개혁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그러나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의 관건인 농지집약화를 위한 세제 우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아베 총리가 규제개혁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쟁력회의를 선택한 것은 TPP반대파나 농업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함
-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농업의 규제개혁이 아니고 농가에 플러스가 되는 테마 설정을 모색하고 있어 농지개혁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본심이 불투명하다는 평가

4 일본기업동향

□ 의류, 가전 등 중국의 생산비율 낮추고 아시아 역내 분산

-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분산시키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음
 - 후나이전기는 2014년 필리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2011년도 90%였던 중국 생산비율을 50% 이하로 낮출 예정
 - 이토요카도는 의류의 중국생산비율을 2011년도 80%에서 2013년도 30%로 크게 낮춤
- 이는 중국의 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日中 관계 악화로 중국에서 내수대응 상품 외에는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현저해지고 있기 때문임
 - * 반다이(완구)의 중국생산비율(2014년도) : 96% → 88%
- JETRO에 의하면, 중국의 제조업 일반종사자 월 기본급은 2012년 10월 시점에서 328달러로 5년 동안 약 40% 상승하여 필리핀이나 베트남, 미얀마 등과 큰 차이가 없음
 - * 퍼스트리테일링(의류)의 : 중국생산비율 : 75% → 60%
- 이토요카도, 후나이전기 외에도 신사복 체인 아오야마상사, AOKI 등도 엔저 하에서 중국보다 비용이 저렴한 다른 아시아국가로의 생산이전을 서두르고 있음
 - * 아오키(對일 수출용 정장(suits) 등)의 중국생산비율 : 70% → 50%(3년 후)
 - * 아식스(신발류)의 중국생산비율 : 55%(2011년도) → 40% 이하(2013년도)
-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 의하면 2010년 중국현지 일본기업의 매출액 중 중국 국내 판매가 23조 2,000억엔, 수출이 11조 5,000억엔
- 중국의 왕성한 내수에 대응하는 한편, 다른 아시아국가로의 생산거점 분산이 확대, 對세계 수출거점으로서 중국의 위치가 약화되고 있음

5 한국관련워치

□ 이랜드, 일본시장 진출

- 대형 의류업체인 이랜드그룹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 세븐앤아이와 제휴 3월에 여성캐주얼복 취급 제1호 점포를 요코하마에서 오픈
 -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행상품을 판매, 젊은 여성들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세븐앤아이의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3년 동안 20~30개점까지 확대할 계획
 - 일본 1호점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MISSO」 브랜드로 면적은 약 500평방미터. 20~40대 여성용 코트와 원피스 등을 취급. 가격은 셔츠류 기준으로 2,000~5,000엔, 품목 구성은 스페인계 ZARA 등과 비슷함
- 최근 유행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퍼스트 패션의 강점을 지닌 유럽과 미국의 업체들도 일본에서 점포망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구미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 이라는 전망
 - 한국 의류 인터넷통신판매로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
- 이랜드는 금년 중 백화점 소고우세이부 외에 이토요카도가 운영하는 S「마리오」 등에 6개 정도를 개설할 예정

□ 포스코, 일본에 자동차부품 가공 신설회사 설립

- 포스코는 일본법인 포스코저팬을 통해 미에현 욱카이치시에 강판을 자동차용 강판으로 가공하는 신설회사를 2월에 설립
 - 자동차부품용 강판을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므로써, 독자적으로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보
- 일본의 금속가공업체인 모리공업과 마루야스공업으로부터 소액출자를 받아 설비를 투자할 계획
 - 6억 5,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비를 갖춰 내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포스코에서 공급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가공, 출하할 계획임